

“예수님의 사역” (막7:24~37)

• 찬송: 210장, 438장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요7:35)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언제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다니시며 사역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입니다(30,35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픈 것이 고침을 받고, 약한 것이 회복되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안수하시고 고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큰 문제로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직면한 아픔과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됩시다.

둘째, 예수님의 사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차별합니다. 권력이 있는 자는 국민을 차별합니다. 많이 배운 자는 그렇지 못한 자를 차별합니다. 그래서, 차별받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차별하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데가볼리 지역의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병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품어 주십니다. 차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셋째, 예수님의 사역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차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 내 문제를 맡기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차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 가정예배

(집에서 드리는 수요예배)

2025. 1. 29.(수)

“참된 제자가 됩시다.” (막6:45~56)

• 찬송: 449장, 453장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막6:50)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이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본문을 통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45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무리도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유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하는 자들이 됩시다.

둘째,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 갑시다(49~50절).

풍랑 속의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착각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참된 제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셋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56절).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간구하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치게 됩니다. 게네사렛에 있는 병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도움을 요청하여 고침을 받게 됩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가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날 가정예배

◆ 예배일시 : 2025년 1월 29일 (수)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서제일교회

담임목사 전종남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4길 8 (☎02-2646-0781)